

태평양, 화장품 점유율 31.2% 목표

2004년 매출 1조1665억원으로 4.2% 증가 기대 ... 2003년 30.5% 장악

태평양이 2004년 매출목표를 1조1665억원으로 높이 잡았다.

태평양은 3월3일 공시를 통해 2003년 매출은 전년대비 2.9% 증가한 1조1198억원, 영업이익은 17.8% 증가한 1882억원, 경상이익은 34.0% 증가한 2587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.

또 2004년 경영목표로는 매출액이 2003년보다 4.2% 증가한 1조1665억원, 영업이익은 11.1% 증가한 2092억원, 경상이익은 13.9% 감소한 2228억원을 설정했다.

다만, 2003년 경상이익에는 계열기업인 태평양종합산업의 자산매각으로 인한 지분법평가이익 437억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2004년 경상이익 목표는 2003년 실적보다 3.6% 늘려 잡은 것이다.

태평양 관계자는 “2004년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나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 전망에 따라 2003년 매출 증가율인 2.9%보다 많은 4.2%의 성장을 목표로 잡았다”고 밝혔다.

태평양의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2003년 기준 5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0.5%를 점유하고 있으며, 2004년에는 31.2%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3/04>